



이름

날짜



신호등을 알게 된 통통이

동화를 듣고, 동화의 한 장면을 예쁘게 색칠해주세요.





창작동화

신호등을 알게 된 통통이



"생일 축하 합니다~" 축하 노래 부르고, 케이크도 먹고, 오늘은 유미의 생일이예요.
 "멍멍!" "와~ 귀여운 강아지다!" 유미는 신이 나서 강아지를 안아 보았어요.
 엄마와 아빠는 동네에 친구들이 없어 늘 심심해하는 유미에게 강아지를 생일 선물로 주신 거예요.
 강아지에게 '통통이'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어요. 이제 유미에게도 새 친구가 생겼어요.

2



통통이와 유미는 술래잡기, 고무줄놀이, 달리기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어요.
유미 방에서 잠도 같이 잤어요.

3



어느 날 유미는 유치원에서 다른 날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
통통이는 유미가 빨리 보고 싶어 집 앞 건너편 찻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.
잠시 후 버스에 탄 유미가 보이는 거예요.
"멍멍!" 통통이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유미를 보자 반가워서 건너편 찻길로 마구 달려갔어요.
그때 갑자기 "뽕뽕! 끼익!"

4



자동차들이 모두 멈춰섰고, 통통이는 다리에 피를 흘리며 차길에 쓰러지고 말았어요.
 "아앙~" 유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오신 엄마는 통통이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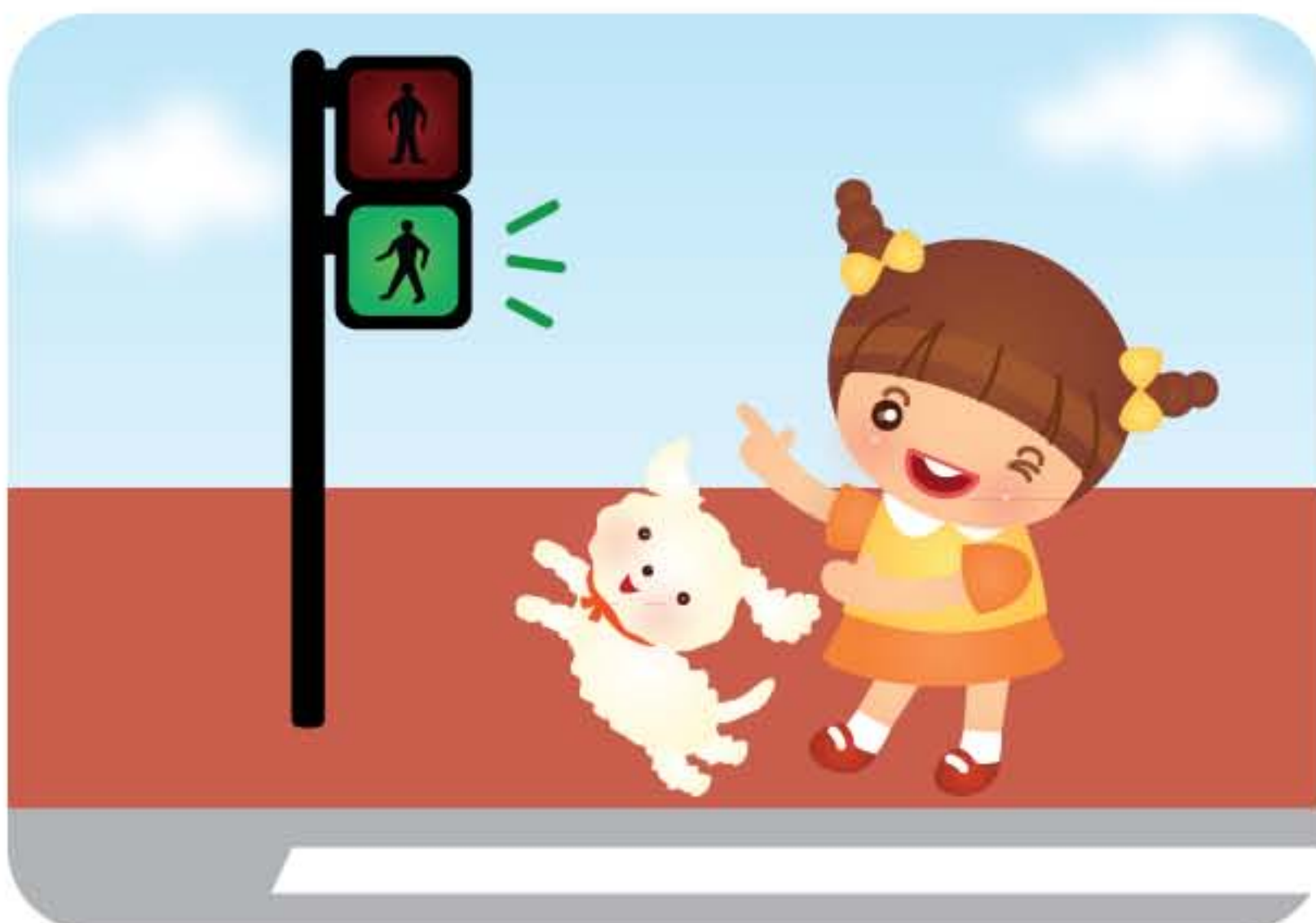
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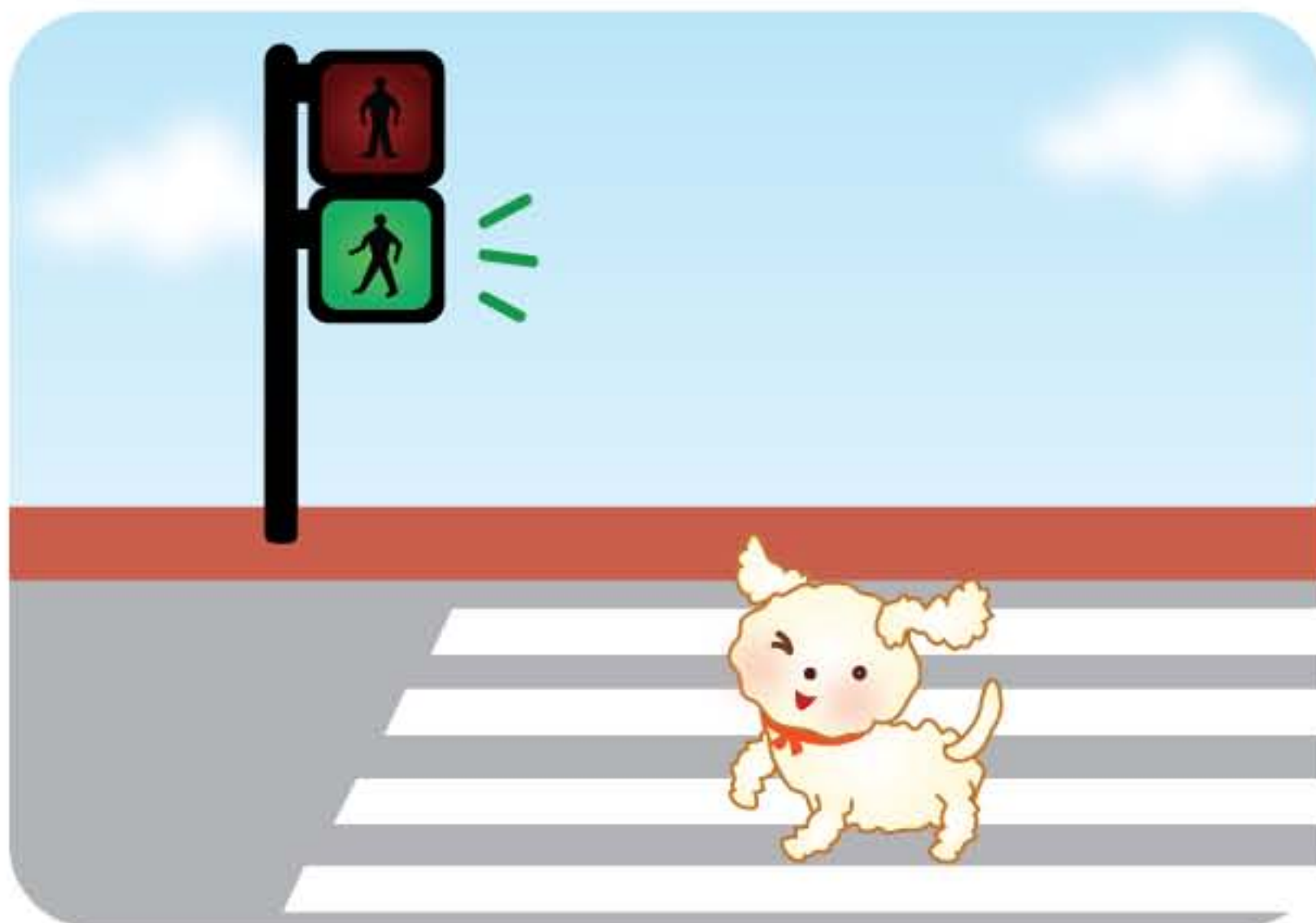
"선생님, 통통이는 괜찮을까요? 빨리 낫게 해주세요"
 유미는 걱정이 되어 울면서 말했어요.
 "아이구~ 이런! 통통이가 다리를 많이 다쳤는걸"
 동물병원 선생님은 통통이를 자세히 살펴 보시더니 유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



"유미야, 통통이가 다치니까 가엾지?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과 약속 하나 할까?"
 "무슨 약속을요?"
 "선생님은 통통이가 빨리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할테니,
 유미는 그 동안 통통이에게 찾길을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"
 유미는 새끼 손가락을 걸고 선생님과 약속을 했습니다.



유치원에 다녀온 유미는 통통이를 안고 찾길로 나갔어요.
 "통통아, 잘 봐, 저기 불이 켜져있는 것이 신호등이란 거야,
 빨간 불일 때에는 기다렸다가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야 돼"
 다음날도, 그 다음날도 유미는 통통이에게 찾길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.



열밤이 훨씬 지난 어느 날 통통이는 다리에 감았던 붕대를 풀게 되었고,
통통이와 유미는 다시 즐겁게 놀 수가 있었어요.
유치원 차에서 내리는 유미는 깜짝 놀랐어요. 건너편 찻길에 통통이가 서 있었거든요.
유미는 나무 뒤에서 통통이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았어요.
통통이는 한참동안 신호등을 보고 있더니 초록불이 바뀌자 꼬리를 살랑거리며 유미에게로 건너오는 거예요.



유미는 기뻐요. 통통이가 혼자서 잘 건너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.
"야! 통통이 만세! 통통아, 참 잘했어" 유미는 통통이에게 뽀뽀해주었어요.
이제 통통이는 찻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똑똑한 강아지가 되었답니다.